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 10:30-12: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 부 일 정

###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사회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박영균(사회자)
10:40~10:50	환영인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50~12:00	발표	김진우(발표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2:00~12: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

#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I 들어가며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차이는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에 접근하는 관점(perspective)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따지고 보면 사회적 실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이,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분리가능성, 가치중립성 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차이로 귀착된다.

엄격한 연구과정,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분리하고 가치중립성을 확보하면 사회적 실재가 파악가능하다고 보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입장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가치중립성을 띠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데까지 생각에 이르고 사회적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의해 포섭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상대주의(relativism)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실주의(realism)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사회적 실재는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실증주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회적 실재는 양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기보다는 사회현상 근처에 흐르는 사회적 실재의 구성원리를 연구자의 직관과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론의 저자 K. Marx가 자본제 사회의 원리를 방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자본제 사회에 대한 K. Marx의 통찰력에 기초한 바가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실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보다는 확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있다.

이렇듯 사회적 실재에 다가가는 접근각도에 따라 연구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증주의 입장에서면 양적연구방법이 보다 친숙하고, 상대주의 입장에서면 질적연구방법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맞아 떨어진다.

한편, 무엇을 연구하는가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물론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문제를 가지고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질문 자체가 양적연구방법에 적합하거나 아예 양적연구방법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 즉, 변인들간의 관계라거나 인과적 서술체계를 지닌 질문들이 제시되면 아무래도 양적연구방법이 적합하다. 질적연구방법에서는

인과적 관계(causal relation)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경향적 관계(tendency)로 보는 것이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방법이 어떠한지 그를 둘러싼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질적연구 패러다임 중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근거이론 연구에서 각각의 자료수집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분석방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또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장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유의하고 지켜야 할 연구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 질적연구 패러다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sup>1)</sup>

###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기보다는 사물이나 현상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태도란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상의 본질이 아니며 현상의 경험의 본질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현상이 전개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그 사회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드러내는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사회현상의 전개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흔히 간호학에서 ‘환자들이 간호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being cared)’이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실제 간호사와의 병동내 생활세계 속에서 어떤 때 실제 간호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경험의 본질을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다.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토로될 것임이 분명하나, 연구자는 그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관통하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의 의식 속에 드러난 경험의 본질을 연구자가 그대로 직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직관한 경험의 본질을 언어를 통해 전달받고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언어가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문화로부터 유추된 언어 속에 개입되어 있는 사고 전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형들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은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해석의 의미는 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② 어떤 것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해석적 활동은 자료 생성이나 자료 분석, 또는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신의 선이해나 가정, 과학적 지식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리를 두는

1) 이 글은 201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자료를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재편집한 것임.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상학적 모험의 출발은 있던 장비마저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선이해와 가정을 자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향이 현상의 본질을 보거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붙들어 매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표집 방법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쓴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그 목적이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에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표집방법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 중에서 어떤 표집전략을 쓸 것인가는 연구설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표현하는 혹은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이 표현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현상학적 면접은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참여자의 구체적 숫자는 세심한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현상은 큰 표본을 사용하지 않고도 탐구되고 발견될 수 있는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된 현상의 경험이 현상학적 연구의 중심이지, 개인의 특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문의 결과는 독자를 설득하여야 하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례의 수는 숙고해 볼 필요 있다. 다만, 표본의 크기는 단순한 사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접의 횟수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cf) 모스 : 20-50건의 면접과 관찰 / 밴 캄(van Kaam) : 10-50사례 /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Glaser & Strauss) : 5-10사례 / 덴진과 링컨(Denzin & Lincoln, 1998) : 10사례 이내

자료생성방법과 관련하여, 연구자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경우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면접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연구자가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에서의 가정(전제)은 ① 연구참여자가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②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현상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고, ③ 현상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접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듣기’를 통한 ‘보기’에 있다.

## 2. 내러티브 연구

이민영(2008)에 따르면 ‘이야기(스토리)’는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나열, 논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해 가는 양식을 말한다고 한다. 또한 이야기는 시각, 청각, 혹은 복합적인 것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야기의 덩어리 중 문자로 된 것을 텍스트라고 부른다. 이야기의 순수재료가 되는 것을 스토리(story)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인공적으로 재배열한 것을 플롯(plot)이라고 한다. 한편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는 이야기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공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의하여 중요한 사건과 불필요한 사건들이 분류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전달에 있어 자신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재배열하거나 편집한다. 이야기하기는 이야기를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건을 필수요건으로 갖춘 서사적 형태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이야기하기’가 ‘내러티브’이다.

### 1)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기(thinking narratively)

#### (1) 환원주의적 경계(reductionistic boundaries)

환원주의(reductionism)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보다 단순한 현상에서 구하는 것으로서, 신의 눈(god's-eye-view)처럼 세상을 보는 절대적인 시각이 있어서 어떤 현상의 전체를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몇 가지 원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총체적인(holistic)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전체는 부분의 특성과 그 특성들의 조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시각에서 부분의 이해에만 집중한 환원주의적 시도는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숲을 보지만 숲을 둘러싼 구름과 바람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환원주의 관점은 거대담론(grand narrative)의 연구 방법으로 구현된다. 즉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체보다는 보편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고(people-free), 탈시간적이며(time-free), 탈맥락적인(context-free)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와 대립되는 방법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경계선에서 자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 ① 시간성(temporality)

내러티브 관점에서 하나의 현상을 이해할 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일을 시간의 맥락에서 놓는 것이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과거,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를 가진다. 그러나 거대 담론은 탈맥락적인 초월적인 보편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대부분 실종된다.

### ② 사람(people)

시간성에 의해 야기된 것과 밀접하게 연계된 긴장은 사람이다. 즉 인간은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든 개인적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사람을 그러한 과정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대 담론은 연령이나 생활수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탈인물적 모형 혹은 개입 목표에 우선적 관심을 가진다.

### ③ 행동(action)

내러티브 사고에서는 행동이 내러티브 신호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성취시험에서 아동의 특정 수준의 수행은 내러티브적 해석을 요구한다. 참여자의 내러티브적 생활 단면을 이해하지 않고는 점수 혹은 적응 능력에 관한 의미 해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대담론은 학생의 성취도 시험에서의 수행은 학생이 획득한 인지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즉 거대담론은 행동과 의미를 연계시키고 수행과 인지적 수준을 연계시키는 동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러티브 사고에는 내러티브 역사 측면에서 상세하게 나타낸 행동과 의미 간의 해석 경로가 있다.

### ④ 확실성(certainty)

내러티브 사고에서 사건의 해석은 항상 다를 수 있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사건의 해석은 항상 임시적이며 확실할 수 없다. 사건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어떠한 해석이든지 시험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시각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다른 가능성, 다른 해석, 다른 설명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거대담론은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확실성이 특징이다.

### ⑤ 맥락(context)

내러티브 사고에서는 맥락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은 시간적, 공간적, 다른 사람의 맥락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은 어떤 사람, 사건, 일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반면 거대담론은 탈맥락적 방향에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하나의 분류법이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지배적 모형을 찾기 때문에 특정 맥락이 번번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거대 담론에서는 보편적인 사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반면 내러티브 사고에서는 맥락에 놓여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결국 경계에서의 생생한 삶의 시간과 맥락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를 조각내지 않기’가 매우 중요하다. 삶이 단편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것처럼 삶의 경험 이야기도 조각조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려 한다거나 주제를 추출해 내려고 할 때 우리는 경험의 풍부함을 밝혀내고자 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영, 2008). 그러므로 내러티브 접근방식에 의하면 경험의 본질을 찾기 위해 맥락을 최소화하고 경험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찾는 현상학적인 접근방식은 장점과는 별도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 (2) 형식주의적 경계(formalistic boundaries)

형식주의(formalism)는 내용이나 주제보다 형식과 테크닉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이론 및 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거 틀/framework)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러한 준거 틀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물을 우리의 틀이나 관점, 시각, 혹은 전망이 그것에 대해 만드는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Clandinin & Conelle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와 형식주의 연구의 경계의 핵심적인 긴장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론의 위치

형식주의는 이론으로부터 탐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생생하게 표현된 경험의 이야기로부터 탐구를 시작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론적 노력은 내러티브 이론가의 문헌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행동, 역할, 서술적 구조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생이 논문을 쓸 때 내러티브 관점의 교수는 이야기와 경험으로 연구문제를 탐색하라고 한다면, 형식주의 관점의 교수는 도서관에 가서 이론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론의 위치는 항상 내러티브와 형식주의 사이에서 긴장을 발생시킨다. 연구 진행단계에서도 이러한 긴장은 계속되는데,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문헌고찰을 위한 장(chapter)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특별한 문헌고찰 없이 옷감을 짜듯이 이론과 실재를 이음새 없이 부드럽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한다. 형식주의적 관점은 독립적인 장(chapter)에서 문헌연구를 다루어야 하고 이론은 논리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도 형식주의 관점은 이론적 모형이나 관련문헌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론을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내러티브 탐구는 일반화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기 원한다기 보다는 연구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와 의의가 창조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주제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사용과 적용을 상상할 수 있도록 문헌자료(literary text)로 만드는 목적을 강조한다.

## ② 사람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 인종, 계급, 성, 권력 등과 같은 형식적인 탐구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연구를 보여주거나 설명할 때, 거의 불가피하게 형식주의적 탐구 경계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형식주의적 측면에서 그들의 연구를 읽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인종, 계급, 성을 가진 구성원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양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해질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있어서 긴장의 일부는 다른 연구 의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모두 탐구에 대한 관점,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탐구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 즉 탐구의 이러한 개인적인 내러티브는 우리가 수행한 실제 탐구에서의 어떤 경계와 일치하여 일어날 수도 있고 어긋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형식주의적, 환원주의적 탐구 역사에 대한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내러티브 탐구를 하게 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탐구 역사에 대한 자신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그러한 내러티브 역사와 그들이 수행한 내러티브 연구 간의 가능한 긴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무엇을 하는가?(What do narrative inquirers do?)

### (1) 내러티브 탐구의 공간 : 3차원적 공간 찾기

듀이(J. Dewey)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협력과정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사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인적·사회적(상호작용), 과거·현재·미래(계속성), 장소(상황)의 개념과 결부된다. 이러한 일련의 용어들은 은유적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만들어 낸다. 첫 번째 차원은 시간성(temporality)이고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사회적인 것(interaction), 세 번째 차원은 장소(place)이다.

우선 Clandinin & Conelley(2000)는 ‘상호작용’과 ‘시간성’의 차원에서 어떤 탐구에서나 필요한 네 가지 방향 즉, 안(inward), 밖(outward), 뒤(backward), 앞(forward)의 방향에 초점을 두면서 기술된다고 하였다. 내향(inward)은 감정,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성과 같은 내적 상태를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향(outward)은 환경과 같은 현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앞(forward)과 뒤(backward)로의 방향이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성을 언급한다. ‘경험을 경험한다는 것’, 즉 경험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러한 네 가지 방식에서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며, 각 방식을 지적하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개념을 수집하고, 해석을 하고, 개인 및 사회적 이슈를 내적·외적 방향으로 조망하면서 텍스트를 작성하고, 일시적 문제를 사건으로서 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로 살펴봄으로써 언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소(place)’는 탐구 장면(inquiry landscape)의 구체적인 물리적이고(physical) 위상적인(topological) 영역(boundaries)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3차원의 탐구공간은 내러티브 탐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의 틀로서 활용된다.

### 3) 내러티브 연구 절차

#### (1) 현장으로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주제나 질문이 내러티브 연구에 가장 적합하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러티브 연구는 한 인생의 상세한 이야기나 생활 경험 또는 소수 개인들의 생활을 포착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하고,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참여자와 만나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Clandinin & Conelley(2000)은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들어갈 때 몇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연구자-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 :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는 늘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미약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훌륭한 내러티브에 작동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그 관계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슬프면서도 그리워하는 느낌을 수반한다.

둘째, 연구목적과 변화에 대한 협의 : 연구의 목적과 탐색하고 있는 궁금증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내러티브가 다시 이야기되듯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궁금증도 이동하고 목표도 변화한다. 따라서 연구과정 중에 각 단계별로 이동할 때 발생할 수많은 변화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 논문제출, 종결 등에 대한 협의도 중요하다.

셋째, 연구현장에 합류하기(현장에 친숙해지기) : 연구자는 통제된 실험 없이 내러티브의 전경 (landscape, 공간과 장소, 시간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구성된 다양한 사람과 사물, 사건들로 가득찬 내러티브 탐구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풍경은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으로 들어가서 참여자의 삶에 합류한다. 연구자가 전경에 친숙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사건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수많은 질문과 의혹만 생겨나게 된다. 내러티브에 동참하고 전경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참여자와 충분히 긴 시간을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대단히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자이자 질문자가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경에서 삶을 살아가기 :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내러티브 탐구가 이야기를 탐색하고 듣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형식, 즉 삶의 방식이며,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처음에 그것은 당연히 여겨온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가장 최근에 당연히 여겨졌던 것 바로 이면에는 언제나 의심쩍은 것이 있음을 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으나, 내러티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활동, 사건들을 더 자주 기록한다. 이것은 장기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내러티브 소재이며,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

##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from field to field text):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이 단계는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텍스트를 작성하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할 만한 이야기나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복잡한 정보원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선택한다. Clandinin & Conelley(2000)는 이야기를 현장텍스트(field text)라고 부른다. 그들은 광범위한 자료원- 자서전, 일지, 연구자의 현장노트, 편지, 대화, 면접, 가족 이야기, 문서, 사진, 기억 상자(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품목들을 수집한), 개인-가족-사회의 인공물(artifacts)을 통해 현장텍스트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차니아프스카(Czarniawska)는 이야기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녹음하는 방법, 면접을 통해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법,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물어보는 방법 등이다.

현장작업을 할 때부터 현장텍스트를 작성하기까지 연구자는 여러 긴장과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내러티브 연구자의 경험은 언제나 이중적인데, 연구자는 언제나 경험을 경험하며, 또한 경험

자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험의 일부가 된다는 측면에서 긴장과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현장과 유동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개입하기와 거리두기를 반복해야 한다. 연구자가 충분히 연구경험에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진실하게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너무 깊게 개입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고 읽는 것은 탐구자로 하여금 친밀감으로부터 잠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 연구현장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와 냉담하게 관찰하기 사이의 이동은 현장텍스트의 구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현장에서 현장텍스트의 구성으로 이동할 때 부딪히는 긴장 중 하나는 실존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해석적으로 기록한 현장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현장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연구자는 현장의 경험과 그 경험을 경험하는 이중적 현장텍스트들(실존적, 외부적 사건을 기록한 현장 노트들; 연구자의 내적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일지 노트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일지 양식의 성찰들은 연구자가 경험의 안과 밖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도우며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비판과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3) 현장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field text)

현장텍스트는 연구자료에 해당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데이터가 아닌 현장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현장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Clandinin & Conelley(2000)는 3차원적 탐구공간에서 현장텍스트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현장텍스트는 풍부하게 묘사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텍스트는 사실과 생각 사이의 고정된 관계보다는 성장과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현장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자는 특정 시점에 자신과 참여자가 시·공간적, 그리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이처럼 3차원의 탐구공간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넷째, 현장텍스트는 다른 현장텍스트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내러티브에 사용되는 현장텍스트의 형식으로는 자서전적 글쓰기, 연구자의 이야기(시, 산문 형태), 연구논문, 구술사, 참여자에게 보낸

연구자의 편지, 참여자의 편지, 문서, 서류, 현장기록, 사진 등이 있다.

(4)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 재구성은 이야기를 몇 가지 광범위한 유형의 틀로 재조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틀은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과 이야기의 주요 요소들(예, 시간, 장소, 구조, 장면)로 분석하는 것 그리고 연대기적 순서로 그것들을 배치하기 위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연대기적 순서대로 제기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재구성 과정 동안 연구자는 아이디어들 간의 인과적 연결을 제공하게 된다.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연구의 연대기는 내러티브를 다른 장르의 연구방법과 구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연대기는 이야기가 도입, 중반, 결말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는 곤경, 갈등, 싸움, 주인공이나 주요인물, 곤경이 몇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는 함축적 인과성(즉, 구조)의 연쇄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연대기는 시간이 단선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는 시간, 장소, 장면처럼 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Clandinin & Conelley(2000)는 이 단계에서 내러티브 탐구자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왜 연구를 하는가?(연구의 정당성의 문제) : 현장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이행할 때 연구주제는 개인적 정당성과 동시에 사회적 정당성에 두는 것이다.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질문한다.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연구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당화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개인의 흥미를 더 큰 사회적 맥락 및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무엇을 연구하는가?(연구하는 현상의 문제) :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탐구에 대한 지속적인 재형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내러티브 탐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내러티브 연구자로서 자신이 관심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현상은 계속 이동하고 변하므로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떻게 연구하는가?(연구방법의 문제) : Clandinin & Conelley(2000)는 고유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제안한다. (i)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틀 안에서 이론적 명확성을 기하고자 할 때 분류하는 틀(예, 현상학, 민속지, 민속지적 방법론, 근거이론 등)을 지양하며, 이야기된 이야기와 경험에서 탐구를 시작한다. 연구자는 3차원 탐구공간에서 그들의 경험을 숙고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험하는 자신을 융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ii) 현장텍스트를 구성할 때 연구자는 친근한 접촉을 통한 관계, 빈도 높은 만남과 대화, 함께 작업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텍스트를 읽고 또 읽고 연구텍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연구참여자와 밀접한 관계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연구참여자와의 풍부한 살아있는 이야기로부터 연구텍스트를 통해 다시 이야기되는 이야기로 초점이 이동되었다는 의미이다. (iii) 해석을 위하여 현장노트, 교사이야기 등과 같은 현장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연구자는 현장텍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threads), 긴장감 등을 개인의 경험,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찾아낸다. 이때 연구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경험에 비추어 비교하면서 현장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게 된다.

#### (5) 연구텍스트 작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구조 혹은 구체적인 글쓰기 전략을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러티브 형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른 내러티브 학위 논문이나 책을 읽는 것, 메타포를 찾는 것, 타인과 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실험해 보는 것 등을 통해 분석과정에서 탐구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텍스트를 쓰기 시작할 때는 기존의 형식주의, 환원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게 마련이다. 또한 연구텍스트 작성단계에서는 현장에 있었을 때의 시각을 대부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추상적 이론적 카테고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더욱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연구텍스트에서 사람, 장소, 사물의 변화과정에 관해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맥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다양한 목소리, 게다가 연구자의 목소리까지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나타난다.

Clandinin & Conelley(2000)는 가장 좋은 내러티브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불확실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목소리(voice)를 균형 있게 하라 :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연구텍스트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층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단층적인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명(signature)을 명확히 하라 : 서명은 연구자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딜레마는 연구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연구자로서의 '나'를 내보일 것인가의 문제다. 연구자의 서명이 강하면 연구텍스트가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고, 너무 약하게 할 때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다.

셋째, 독자(audience)에게 물어라 : 연구물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지, 독자에게 이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연구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 3.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의 역사는 서구사회의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개척과정에서 초보적인 연구자들이 비서구사회를 찾아가 해당지역과 민족집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 서구사회에 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그와 더불어 1880년대에 들어서 간접체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비판받으면서 연구자가 현장에 가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현지조사가 바른 연구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Boas, Spencer, Malinovski 등의 선구적인 현지조사 연구자들이 생활상태 참여관찰을 통하여 총체적 접근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20년과 1930년대 시카고 대학의 Park, Dewey, Mead 등의 사회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문화집단을 연구하는데 인류학적 현장조사방법들을 적용하게 되었다. 최근 문화기술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들은 구조적 기능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문화인류학, 인지인류학,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민속방법론, 비판이론, 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다른 이론적 지향과 목적을 가진 '학파'나 하위유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Atkinson & Hammersley, 1994)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기술지적 방법은 문화인류학이 타문화에서 자문화로 초점을 전환하고, 다양한 패러다임

과 학문,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접근방법들이 세분화되고 이것을 연구전통이라 부르며 총체적문화기술지, 신문화기술지,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 비판적 문화기술지로 분류(신경림 외, 2004)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를 행동의 패턴으로 본다면 총체적문화기술지를, 행동의 기반이 되는 집단의 인지구조로 본다면 신문화기술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 1) 총체적문화기술지

총체적문화기술지에서는 문화체계에 의하여 인간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구조기능적 접근은 취한다. 문화적 규범과 법칙이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Radcliff-Brown, Malinowski 등이 대표인물로 손꼽힌다. 연구집단의 신념과 행위를 기술하고,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전체에 기여하는가를 보여 줌으로 문화의 전체 또는 부분을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에서 있다. 이 전통에서 문화는 중심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인간이 학습한 것을 문화라고 할 때, 학습한 것은 관찰 가능한 사회구조나 조직 같은 행위의 패턴과 기준 같은 의식현상인 행위를 위한 패턴으로 나누게 된다.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문화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적용하되 인간문화의 어떤 측면은 모든 사회의 인간 삶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를 인간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대상화함으로써 문화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소외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연구의 우선적인 관심은 전체로서의 문화의 일부 또는 문화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며, 부분이 전체와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 2) 신문화기술지

문화는 궁극적으로 의식의 차원이든 무의식의 차원이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칙이라 간주하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의 구조인 이 법칙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고, 인간의 행위는 이 구조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행위의 양상(pattern of behaviors)이 아닌,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양상인 '행위를 위한 양상(pattern for behaviors)'만을 문화로 간주한다. 이 전통은 특별한 인지체계에 대한 조직을 완전히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다. '어떤 문화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물질적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문화를 마치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정치적 과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또는 그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나 인지체계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의미의 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전통의 연구자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하지 않으며, 기대된 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행동으로 이끄는 관념체계에 관심 있다.

문화기술지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은 다른 패러다임과 큰 차이는 없으나, '현장'을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기술지는 현장조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 3) 현장진입

문화기술지 연구자에게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즉, 중재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중재자는 중재자와 집단 간의 유대가 가까울수록 더 좋다. 집단이 중재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연구 초반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항상 최고의 안내자를 발견할 순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아무런 도움 없이 공동체에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4) 자료수집방법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조사를 전제로 할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근접학 (proxemics), 지도작성, 친족계보표, 정보제공자 인터뷰, 참여관찰, 생애사, 개인적 기술, 문화사, 민간전승, 민족의미론, 서베이, 공식적 조직연구, 사진촬영, 커뮤니티 연구 등이 활용되며, 현장조사를 전제로 하여 참여관찰, 인터뷰, 목록과 양식, 질문지, 투사기법, 사회적 위계서열, 의미차별기법, 인지적 개념화, 인공물, 민간전승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 4. 근거이론

근거이론이란 실제적 속성의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론을 발견하는 과정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을 의미한다.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이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다르다. 즉, 개념을 구성하는 것과 구성된 개념을 근거로 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근거이론은 경험에 근거한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하는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경향이 있다. 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실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중범위(mid-range)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근거이론의 방법론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현장 들어가기 및 자료수집하기

### (1) 객관성과 민감성 사이의 균형 유지하기

먼저,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기’이다.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①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 ② 복수의 관점을 가지는 것 (triangulation), ③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④ 연구절차를 따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료의 의미에 대한 민감성 개발하기’이다. 이는 자료안의 사건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속성이나 차원 수준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②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들 수 있다.

### (2) 표집

근거이론에서의 표집전략은 일차적 표집과 이론적 표집으로 나뉜다. 먼저 일차적 표집으로, 적절한 자료의 출처인 연구참여자를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타 질적연구 패러다임과 달리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는 선정된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이론 개발을 위한 이차 표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을 기초로 표본추출 하는 것이다. 이는 질문과의 비교 방법을 사용하고 누적적인 의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며 일관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표집은 이론적 표집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유형논리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개방코딩의 표집이다. 이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현상을 발견하고 이름붙이고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수집과정을 모든 가능성에 열어 놓는 것과, 일관성(범주들에 관해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것)과 발견하기(새로운 범주나 속성, 차원을 찾는 것)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의 표본추출방법은 의도적으로 범주/속성/차원과 관계있는 자료를 찾는 것, 각 범주를 나타내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사건, 우연한 일 등의 증거를 찾으면서 목록위의 한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다른 사람,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을 쓴다.

둘째, 축코딩의 표집(관계적, 변화적 표본추출)이다. 이는 개방코딩과 그 과정 동안에 발견되는 범주들과 하위범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과 관련하여 변화와 과정의 증거를 찾는 것을 말한다. 패러다임(상황, 전후관계,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측면에서 범주들을 연결하고 ‘다시 질문하기’와 ‘비교’가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이다.

셋째, 선택코딩의 표집(차별적 표본추출)이다. 이는 이론을 형성하는 차원화의 단계를 따라 범주를 통합하고 관계에 대한 통합과 진술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더 보충이 필요한 범주들을 메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각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상태라고 부른다. 이는 ① 범주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새로운 혹은 연관된 자료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을 때, ② 범주가 변화를 보여주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충분히 발전되었을 때, ③ 범주간의 관계가 잘 설정되고 검증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 III

## 질적연구 자료수집방법 이해와 쟁점

### 1. 질적연구의 표집

질적연구에서의 표집대상에는 사람(개인, 집단, 집합체), 조직, 제도와 사회적 실재, 현장과 환경, 사물, 유물과 매체 제작물, 사건과 사고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의도적으로 선택(의도적 표집)하는 것으로, 표집은 연구 도중 바뀔 수도 있으며, 연구자들이 유연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표집전략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또 연구자들은 하나의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표집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집전략은 획일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아래 표 참고).

**표 1**      **질적연구의 표집전략 유형(Miles and Huberman, 1994)**

	표집유형	목적 및 설명
1	최대 편차 (Maximum var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편차(variation)를 기록하며,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한다.</li> <li>•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Cresswell E)</li> <li>• 사전에 다양한 참여자나 현장을 포함하는 몇몇 기준을 정하고 그중 기준에서 가장 다른 현장이나 사람들을 고르는 방식</li> <li>• 연구자가 연구 초기에 차이를 극대화하여 연구 결과가 차이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함</li> </ul>
2	동질성 (homogeneous)	초점을 맞추고 간단히 정리하고 단순화하며 집단 면접을 촉진한다.
3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사례를 표집</li> <li>• 논리적 일반화와 다른 사례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 적용을 허용한다.</li> </ul>
4	이론 기반(theory based)	이론적 구성체의 예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고찰한다.
5	확증적/비확증적 사례들 (confirming/disconfirming cases)	초기 분석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예외를 탐색하며 편차를 찾는다.

	표집유형	목적 및 설명
6	눈덩이 굴리기(snowball) 또는 연쇄(chain)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요 사례를 찾는다.
7	극단적/일탈적 사례 (extreme or deviant case)	주요 현상이 매우 특이하게 표출되는 것으로부터 배운다.
8	전형적 사례(typical case)	정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을 강조한다.
9	강도(intensity)	현상을 강렬하지만 극단적이지 않게 표출하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들
10	정치적으로 중요한	원하는 주의를 끌거나 원하지 않는 주의를 끄는 것을 피한다.
11	무작위 의도표집	가능한 의도적 표본이 아주 클 때 표본에 대한 신빙성(credibility)이 증가한다.
12	층화된 의도표집	하위집단을 묘사하고 비교를 촉진한다.
13	기준 (criterion)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례들의 질 보증에 유용하다.
14	기회적 (opportunistic)	새로운 것을 포착,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이용한다.
15	조합/혼합 (combination/mixed)	다원화, 융통성,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킨다.
16	편의(conven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현장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표집</li> <li>• 정보와 신빙성(credibility)을 희생하는 대가로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한다.</li> </ul>

표집규모를 결정할 때 제기할 핵심 질문은 표본이 과연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초점이 맞추어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질적연구 방법은 포괄적인 이해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형태의 사회과정이나 의미,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적절한가의 여부는 연구자가 무엇을 비교하고, 창출된 표본이 어느 수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교와 설명을 적절한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형태의 범주들을 얼마나 많이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연구자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표집전략은, 비단 자신의 분석이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창출해낼 범주들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 또는 이끌어내고자 하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도 찾아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연구자는 표본의 크기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충분한 확보 여부를 연구자가 자신의 지적인 직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Creswell(2007)은 아래와 같이 주요 질적연구에서의 표집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주요 질적연구에서의 표집규모(Cresswell, 2007)

질적 연구 유형	표본 크기
내러티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 이야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거대한 참여자 풀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명이나 2명의 개인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li> <li>•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 대해 진술할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li> </ul>
현상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현상학 연구에서 1명에서 325명까지 표집규모가 다양했음.</li> <li>• 모든 참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연구될 현상을 경험해야 함 → 모든 개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기준표집방법이 잘 맞음</li> </ul>
근거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히 포화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30명 혹은 그 이상을 권고</li> <li>•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기초하여 참여자를 선택</li> <li>• Strauss와 Corbin(1998)은 이론적 표집을 언급. 이는 동질적 표본(예를 들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던 모든 여성)을 선택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 → 이론을 개발한 이후, 이질적 표본(예를 들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던 여성 이외에 다른 유형의 지지집단)을 선택하여 연구. 이처럼 이질적 표본을 연구하는 근거는 모형이 적용되는 맥락적, 중재적 조건을 확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li> </ul>
문화기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한 개의 문화집단 현장을 선택하면 다음으로 누구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문화 내부적인 표집with-culture sampling과정을 거침)</li> <li>• Fetterman(1998)의 '큰 그물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에는 연구자가 모든 이와 섞임</li> <li>-연구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들의 연구질문에 맞는 하위문화 혹은 단위의 구성원을 선발</li> <li>-기회를 이용하거나(Mile와 Huberman 식으로 말하면, 기회적 표집), 개인을 선택(기준 표집)할 기준을 마련함</li> </ul> </li> <li>• 그렇다면 누구 혹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 Hammersley와 Atkinson(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의 사회적 삶에서의 연대기적 시간과 인구학적 측면에서 문화공유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li> <li>-다양한 행동을 야기하는 맥락에 대한 관점을 획득하는 것에 기반</li> </ul> </li> </ul>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swell(2007)은 집합적 사례연구 중 특이한 사례의 선택을 선호하며, 사례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표현하는 전략으로 '최대편차 표집'도 선호함</li> </ul>

## 2. 심층면접하기

### 1) 질문구조<sup>2)</sup>

#### (1) 시설이용 당시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평가

- 과거 서비스 이용 당시 회상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마음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 ☞ 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연역적으로 전개
- 과거 서비스 이용 당시를 회상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는가?
  -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마음이 어떤가?, 그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 그 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국면을 나누어 질문해도 좋을 듯)
  - ☞ 공부하던 것, 친구들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컴퓨터 등 기자재, 건물 및 시설물 구조(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점 때문에 불편했는지,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간부에게 전달되고 시정조치했는지?)
-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 ☞ 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았던 것을 시설이용을 중단하게 되면서 못하게 되었을 텐데 어땠어요?'라고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시설이용중단에 따른 삶의 내용, 느낌 등으로 옮겨오도록 한다.
-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 ☞ 위와 마찬가지로

#### (2) 시설이용중단에 대한 집중탐색

- 시설이용을 중단하게 된 계기적 사건이 무엇인가?
  - 그 사건에 대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기분이 어떠했는가?
  - 지금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어떤가?
  -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2) 이 부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 이용 중단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질문구조에 대해 컨설팅한 것으로서 이 사례를 통해 질문구조를 설명하려고 함.

○ 전체적으로 시설이용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두세 가지 들라고 한다면?

### (3) 중단 이후의 생활

○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시설을 이용하던 시간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서 좋았던 것들은?
-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서 안 좋게 되었던 것들은?

☞ 시설이용 당시 자신에게 좋고,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아울러 시설에서 제공했던 서비스 내용을 범주화(컴퓨터 이용, 숙제해결, 식사해결 등)한 후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시설이용 중단 이후에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했는지 질문

○ 시설이용 중단 이후 가장 아쉬운 것은?

### (4) 앞으로의 계획

○ 시설을 다시 이용하고 싶지는 않은지?

- (그렇다면) 현재의 삶에서 시설을 다시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배출요인) / 시설의 어떤 면이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드는지?(흡입요인)
-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시설 측의 배출요인과 현재 생활에서의 흡입요인을 공히 질문 후 분석

☞ 위의 이분법적 구도 외에도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무엇이 선결과제로 해결되면 실제 이용할 것인지? 거꾸로 이용하기 싫는데 현재의 삶이 주는 어려움 또는 고통이 일정 정도 계속되면 할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등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질문해야 할 듯

## 2) 연구참여자의 진술 이해하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면접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는 라포 형성이다. 얼마나

연구참여자가 면접과정을 편안하게 느낄 것인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는 초기에 어떻게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연구자의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면접장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비일관성, 비협조, 회피, 회상의 부정확성, 언어능력의 부족, 개념이해의 어려움, 불안정한 감정상태, 편견 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면접의 앞뒤, 기본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때 ‘거짓을 이야기한다’, ‘신뢰성이 없다’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면접시간도 아동의 경우에는 매우 민감하다. 20분 정도 면접에 주력하다가 어느 정도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연구자 또한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반응해주며 자신이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하는 속도, 분명한 발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선택 등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면접질문을 머릿속에 구조화하여 언제라도 질문의 앞뒤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질문 순서와 같은 답변순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로는 두 번째 질문에서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모두 진술할 수 있다. 무엇이 답해졌고 무엇이 미제로 남아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심층면접은 모든 질문을 구조화해서 모두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든지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흘러들어갈 준비를 연구자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가 중요하며, 아울러 과거의 생각, 현재의 느낌, 미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시계열적으로 질문되어야 한다. 즉, 사고, 감정, 판단,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답해졌고 무엇이 답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유연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이해하며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다. 외모(general appearance), 몸의 자세(body posture), 몸짓(gesture), 움직임(movement), 거리(distance), 얼굴표정(facial expressions), 눈맞춤(eye

contact), 목소리(voice tone) 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어메세지와 비언어 메시지가 다를 때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 3. 연구윤리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면에서 윤리적인 이슈들을 만들어 낸다. 질적연구에서의 면접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윤리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면접자의 신뢰성이다. 면접자는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정직한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

둘째, 익명성이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이 연구참여자 실명으로 활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비밀보장이다. 솔직한 응답을 위해 응답이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비밀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익명성과 비밀성의 차이는 비밀성은 면접자가 응답자의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의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지거나, 응답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기록 보관이다. 기록 문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을 잠가두어야 한다. 연구를 발표할 때에는 통계적 결과만을 보고하고, 사례를 인용해야 할 때에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가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인터뷰 내용 소개 시 신뢰에 관한 것이다. 무엇에 관한 인터뷰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가 인터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인터뷰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록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섯째, 고지된 동의이다. 인터뷰 시작 전에 인터뷰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의 활용처 및 활용정도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동의를 별첨자료 참조).

### 4. 분석과의 관계

질적자료수집은 어떤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자료수집구조가

달라진다. 또 이는 필수불가결하게 자료분석방법과도 연결된다. 어떤 자료분석방법을 쓰는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표현할 방법은 자료수집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능하지 않게도 만든다. 그러므로 자료수집에 있어 자료분석방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대화분석방법을 쓴다면 말(verbatim)이 글(writing)로 전환될 때 사장(死藏)되는 비언어적 의미를 최대한 살려 인터뷰 당시에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그대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작업을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준비단계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석에 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언어적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살려내고 말의 고저, 장단, 주저거림 등에 대해 대화 당시의 총체적 의미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분석방법을 쓰지 않고 내용분석방법을 쓴다면 말의 주저거림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내용이 실제로 언급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내용 위주로 글로 옮기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듯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야 자료수집과 자료분석간의 결절이 생기지 않는다.

## IV 글을 맺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아카데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현상학적인 접근이다. 시설이용의 경험, 그리고 이용중단의 경험, 중단 이후의 달라진 삶에 대한 경험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의 내용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진술을 포섭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내러티브 접근이다. 사실은 서비스 이용, 중단, 중단이후가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 또 중단하게 된 계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아동의 삶의 스토리에 해당한다. 기승전결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적은 사례 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또 그 삶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대상에 포섭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삶을 오롯이 드러내는데 조연의 역할, 관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연구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는 과정에서 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가이다. 즉, 보편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실용적 연구에 있어서는 몇몇 사람의 삶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져다주는 장점에 공감하기 보다는 소수 일부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함의를 이 사회 전체에 주는가에 대한 항변적 질문에 더 솔깃해 한다. 다양한 내용을 드러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맺어지기를 더 원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상학적인 연구로 진행되는 것이 연구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있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지분들을 떠나서 연구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과연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드러내고 싶은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연구참여 동의서 (예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의 제목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귀하와의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를 맡기신 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지적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중에 효과성을 보는 연구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와의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녹취된 내용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면접 도중에도 언제든지 면접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녹취록의 필사본에 대해 귀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귀하의 의중과 달라 그 의견을 피력하시면 이를 분석과정에 재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취지와 면접 주제, 그리고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면접에 응해 주실 것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연구자와 귀하께서 각각 한 부씩 가지게 됩니다.

참여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

김뜰뜰(010-0000-0000)

## 참 고 문 헌

- Clandinin, D. J. & Conelle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 강현석 · 조덕주 · 박민정 역(2007). 서울: 교육과학사.
- Creswell, J.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Sage,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공역(2010). 서울: 학지사.
- Keats, D.M. 2000. Interviewing: a practical guide for students and professional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Kvale, S. 1996. InterViews—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 Patton, M.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Newbury Park: Sage.
- Strauss, Corbin 지음, 김수지,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한울, 2008
- Strauss, Corbin 지음,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2001
- 이민영(2008). 「내러티브 연구」,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2008). 사회 복지 질적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홍현미라 외,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 Guba, E. and Lincoln, Y.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N.K. and Lincoln, Y.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 Hutchby, I. and Wooffitt, R. 1998.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Polity Press.

- Matthews, B. and Ross, L. 2010. *Research Methods: A Practical guide for the social science*. London: Pearson Education.
- Miles, M.B. and Huberman, A.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Thousand Oaks, CA: Sage.
- Patton, M.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Newbury Park: Sage.

MEMO

MEMO

세미나자료집 12-S1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

**인 쇄** 2012년 4월 23일

**발 행** 2012년 4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